

“ 우리에게 그날이 올까?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나누고, 절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복음화된 한반도 통일조국의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한국장로교회가 하나가 되는 한 교단 다 체제를 이루고 하나 된 교회로 태어날 날이 주어질까? 희망이 없는 중에도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이사야, 세레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천년 역사 속에 무수한 신앙 선배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승리했다.

우리말의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는 것이다. 소망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다. 신생아가 태어나고 조간신문을 읽고 편지통에 온 편지를 기다리는 것은 무슨 신선한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연한 기대나 새 소식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비전을 바라고 믿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저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말씀을 세우기 위해 그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므로 무엇을 희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희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젊은이에게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보다 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명분과 욕심과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부르심에 합당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시지프스의 신화에서처럼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산꼭대기에 바윗돌을 올리려는 무의미한 반복 행위는 무시간이며 역사 없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받은 비전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가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에 소망의 근거를 든듯히 세웠다. 모든 희망은 미래적이므로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과거에 소망을 걸고 있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믿고 거기에 소망의 줄을 건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이로 여기신 바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된다. 소망은 주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소망도 행동하는 믿음도 주신다. 믿음이 없는 소망도 없고 소망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린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성도의 낙심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완성된다. 소망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상태인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소망 안에 사는 것이 신자다. 소망은 기쁨도 가져온다. 소망은 영원한 것이므로 훈장과 칭호와 업적 같은 일시적인 것에 구속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 가치들로 인해 불안, 초조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현재 세계에서도 참 즐거움을 체험한다.

☞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소망의 원리, 근거, 목표를 교회로부터 항상 받아야 한다. 9번 정치 현장에서 낙선하고 10번째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바울도 모두 인내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내는 사랑의 뿌리요, 믿음의 잎사귀며, 소망의 열매다.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 소망을 품고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 그리고 특히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받아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한국장로신문 [제 1460호] 2015년 5월 30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Mr. Kyung Won Jang]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Scripture Reading	Micah 2:1-5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Humans' Plans and God's Plan” Rev. Euichang Kim
* Hymn	65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0.8em;">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사),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가즈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씩김경옥(인도), 서광중 이상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 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판,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비로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시, 수비씩 알로롱, 비시누벤드, 보디소프, 린롱, 수린존 (방글라데시) / 감태식, 윤영동, 이금순, 김경일(군선교) // 정상찬홍성임(말라위),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제30권 제8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2월23일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이종윤</p> <p>Lee Jong-Yun, Ph. D., D.D., D. D.</p>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고린도 서신의 서론 ”

■ 고전 1:1-3

고린도 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오늘 날 한국교회에서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교회관, 목회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고린도 서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서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당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도성에는 건질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3개인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또 하나의 서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특징을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1~6장)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분쟁과 영적인 은사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였으며,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7~16장)는 전반부에 거론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정리하고, 올바른 교회관을 제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성화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서신 13권의 첫 문장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에 의문을 갖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스데반을 돌로 쳐죽이는데 적극적이던 자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난 후 바울은 곧바로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라 놀랐습니다. 또한 바울의 예전 행적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그를 의심하며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서신의 첫머리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의 출처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다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 사도에 대하여

사도의 사전적 의미는 ‘신성한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힘쓰는 자’이나 사도의 진정한 뜻은 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 ②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③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열두 제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12사도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였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며 3년 동안의 특별훈련을 받았다 했으므로, 바울도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성경은 계속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외에는 없습니다. 일부 교단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지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점 하나라도 침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맺는 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므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99: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7(시 1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3(2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하나님의 교회”...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445(50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전 1:3)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1:1-2 인 도 자
 찬 송 14(30) 다 함 께
 기 도 손태현 집사
 성 경 창 15:1-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햇불 언약” 설 교 자
 * 찬 송 535(32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이영희 권사
 성 경 막 8:1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아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12. 의료 상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상담 일시 중단)
 당회와 의료선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번 주일 1부 예배 시부터 3부 예배까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발열여부 확인 및 손 소독 실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4. 호산나대학 수학교사 모집

모집: 호산나대학에서는 수학교사를 모집하오니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담당: 수학교사(대졸 이상) 전공학과 졸업 및 경력자 우대, 정규직 기간 직(전환 가능),
 급여: 본교 내부 규정 및 면담 후 결정
 ※ 문의 : 호산나대학 행정실(Tel.031-585-9184)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772명	243명	178명	1,193명	12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1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16일	헌 금	35,039,526	
	교회학교운영비		854,000
	예 수 금		7,190,58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700,000
	출 판 비		250,000
	연합사업비		1,600,000
	지원교회		1,100,000
	복리후생비		80,000
	통 신 비		653,400
	수도광열비		270,000
	차량유지비		823,100
	소모품비		2,994,870
	환경유지비		511,800
	수선유지비		295,500
	식당운영비		772,270
	합 계	35,039,526	18,395,520